

2017년 5월 23일, 조천읍 북촌리 현덕선 씨 덕, 강수경 조사.
현덕선(여, 1928년생, 조천읍 북촌리)

- 줄거리: 김녕에서 북촌으로 거지 부부가 오다가 동북리와 김녕 사이에서 해가 저물었다. 부부는 동자석을 세운 산담에 들어가서 누웠다. 가만히 산담에 누웠는데 산담 안에서 귀신 부부가 하는 말을 들었다.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왜 떡을 안 받아왔냐고 물었다.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 보니 자기 아버지 제사에 아들이 자고 있었다고 하였다. 화가 나서 손자 손을 화롯불에 데게 해버렸다고 하였다.

[제보자] 헌디 우리 할머니가

“죽은년아, 잘 들으라.”

이렇게 허여.

“무사 말이우꽈?”

허난, 아멩헤도 저 김녕쯤에서 이 북촌쯤을 걸바시가 할망 하르방이 오다가 동북광 김녕 양 새에서 해가 저물안 못 오난. 그 옛날 부제는 산 써가지고 이런 디 사름 동쪽망조를 막 세와. 이제도 그런 산이 있어. 동쪽망조. 그추룩헌 산에 할망 하르방이 어둑으난 산담에 강 영 누나네, 구신 엇덴 말은 허지 말렌 식이라. 우리 할머니는. 영 누나네.

“하르방 식게 먹으레 간 떡 아니 받앙 왔어?”

영 허난.

“아무 것도 무사 아니 앓앙 왔어?”

하르방 골아가난, 부예가 난. 간 보난 다 뉘 자비언. 아덜네 집이 아덜 하나가 난 잇인디. 옛날에 돌로, 이제 어디 관광지 가민 돌화리가 있어요. 영 불 살릅는 돌. 그디 불 살른 디 잇인 애길 그레 즈앙 놔똥 와불고렌. 게난 할망은,

“경 행 뉘어. 즈손인디.”

“아 지에비 식갯날에 뉘 자는 것덜 놔 뉘?”

영 헌디, 그 동녕 헤 먹으레 뎡기는 사름이 가만히 산담에, 안네서 저만이서 그 구신이 그런 말을 허더렌.

경 허난, 우리 할머니 구신 엇덴 말은 못 헌다. 죽은년아. 경 허멍 구신은 잇저.

- 핵심어 : 귀신, 산담, 식게, 돌화로, 김녕리, 북촌리, 걸바시, 동녕, 제사